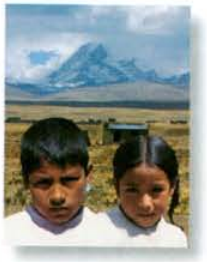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부록 : 친구들 · 2000년 6월호

리아호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부록 : 친구들 · 2000년 6월호

리아호나

표지
앞: 사진 촬영: 게리 애밴트, *처치 뉴스* 제공; *뒤:* 사진 촬영: 게리 애밴트와 돈 그레이스튼, *처치 뉴스* 제공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콜리스 클레이스튼

일반

1 대관장단 서한

2 대관장단 메시지: 소중한 어린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10 90세에도 변함없는 봉사의 모범

16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과 권고

18 예언자를 따름: 몰몬경을 통해 얻는 통찰력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즈

25 방문 교육 메시지: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26 말일성도의 소리: 사랑의 봉사
엘리야의 영 마르코 안토니오 패네스 스파노
생의 기쁨을 발견함 이고르 부르체프
주님이 내 눈을 열어 주셨을 때 태요 엠 투어슨

34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32쪽 참조

청소년란

24 몰몬 메시지: 관계는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32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음

43 찬송가: 내 구주 살아 계시다

46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리처드 엠 롬니

친구들(별책 부록)

2 친구 사귀기: 볼리비아, 빌라 리페의 리차드와 마리아 라이메 활퍼
콜리스 클레이튼

5 심심풀이: 나는 개척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팻 겔시 그레이엄

6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중의 하나 앤 재미슨

8 이야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케이 개너

11 손수레 개척자 수잔 애링튼 매드슨

14 신약 성서 이야기: 침례 요한의 탄생; 요셉과 천사

18쪽 참조

34쪽 참조

친구들, 11쪽 참조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제6호
20986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 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첸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파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엠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폼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탭: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래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선임 디자이너: 섀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데니즈 커비, 제이슨 엘 멈포드, 디나 엘 소렌슨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탭: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턴슨
부장: 조이스 핸슨

통 권: 제411호, 제37권, 제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0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파(☎ 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랜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드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une 2000 No.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대관장단 서한

1999년 10월 4일

수신: 전세계의 교회 회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월요일 밤은 가정의 밤을 행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이 시간을 가족 유대 강화와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을 위해 남겨두시기를 권고합니다.

금년 초에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에 가까이 있게 해주는 복음 원리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모님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과 복음 공부 및 교육, 그리고 건전한 가족 활동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월요일 저녁에는 결혼 피로연을 개최하거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피하도록 강조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회원들은 지역 사회 및 학교 지도자들에게 월요일 저녁에 자녀나 부모가 그들의 가정을 떠나야 하는 활동을 계획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 건물과 시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와드 또는 스테이크의 어떠한 활동도 계획되어서는 안되며, 가정의 밤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대관장단

*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참조

소중한 어린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형의 산에서 내려와 갈릴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버나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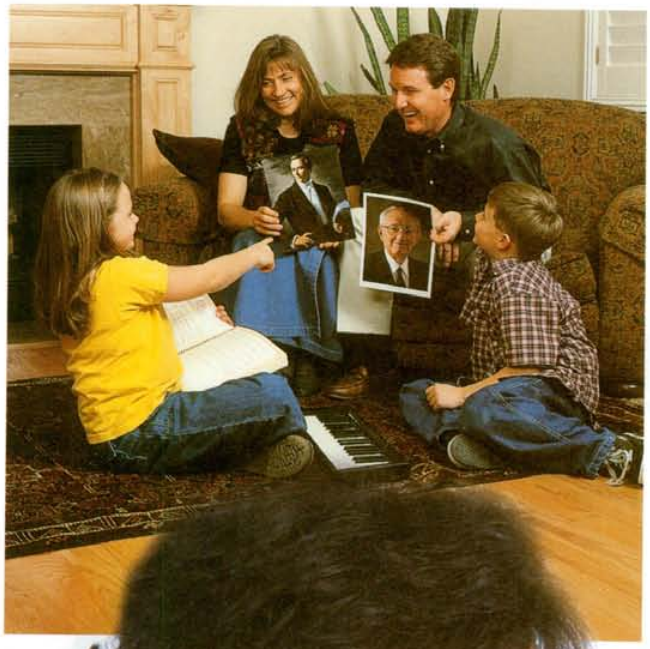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마태복음 18:1~6)

저는 전세를 떠나 지상에 온 지 얼마 안된 어린이들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사랑이 타오르게 하며 우리에게 선행을 하도록 영감을 줍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니다.

시인 워즈워드가 우리의 출생에 대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어린 시절을 기억케 하는 불멸의 송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도착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

아마 모든 교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실은 가정이라는 교실일 것이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형성하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소망을 키우거나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곳도 바로 가정이다.

들에게, 즉 우리가 출생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적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옵니다. 어떤 희생도 너무 크지 않으며, 어떤 고통도 너무 심하지 않고, 어떤 기다림도 너무 길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생긴 다음과 같은 사건에 관한 뉴스를 듣고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이 봉투에 싸인 채 쓰레기 통에 내버려진 신생아가 병원에서 간호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아주 예쁘고 건강한 여자 아기입니다' 라고 병원 대변인이 수요일에 말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청소원이 쓰레기 통을 청소차 뒤쪽 끝에 붓고 나서 쓰레기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당국은 그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다가와 축복하는 어린 아이를 우리의 가정과 마음에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의무요 귀중한 특권이며 진실로 성스러운 기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서로 다른 배움의 교실을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교의 교실, 교회의 교실 및 가정이라 불리는 교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의 교실

교회는 항상 공공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회원들에게 우리 청소년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학부모—교사 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교육 부문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소년 소녀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교사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가정의 영원성과 순수함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영속성은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며, 교사는 아이에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복음 이상 [1954년], 436쪽) 저는 우리가 충분한 시설, 가장 훌륭한 책, 그리고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중요성과 중대한 사명을 인정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감사와 신뢰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청소년의 교사들을 애정을 갖고 기억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저에게 음악을 가르친 분이 샤프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샤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악기와 그 소리를 알아낼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저는 또한 건강 과목을 가르친 루스 크로우 선생님의 영향력을 잘 기억합니다. 그때는 경제 대공황기였지만 그 분은 6학년 각 학생의 구강 점검표를 가지고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분은 각 학생의 구강 점검을 직접 행하셨으며 공적인 방법이든지 개인적인 방법이든지 모든 어린이가 적절한 구강 치료를 꼭 받도록 하셨습니다. 지리를 가르친 버크하우스 선생님께서 세계 지도를 펼쳐서 지시봉으로 각국의 수도를 표시하며 각 나라의 독특한 특징과 언어와 문화를 말했을 때, 언젠가 제가 이러한 나라들과 국민들을 방문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거나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격려해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 주며 그들의 생활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사들은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교실

교회의 교실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더해 줍니다. 이곳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공과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간증의 영향력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초등회, 주일학교, 청녀 모임 및 아론 신권 모임에서 주님의 영감으로 부름 받은 잘 준비된 교사는 각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118) 이곳에서 주는 격려의 말씀과 저곳에서 주는 영적인 생각은 귀중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불멸의 영혼에 영원한 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교회 잡지 시상식 연회에서 우리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내외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리 대관장께서는 저의 십대 딸인 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쁜 얼굴과 신체로 너를 축복하셨구나. 외모만큼이나 그 내면을 아름답게 지키거라. 그러면 너는 참된 행복을 축복을 받게될 것이다." 이 훌륭한 선생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해의 왕국에 이르는 영감받은

지침을 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교회 교실의 겸손하고 영감받은 교사는 반원들에게 경전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진실로 교사는 옛날의 사도들과 세상의 구세주를 교실로 모셔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 안으로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 불리는 교실

아마 모든 교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실은 가정이라는 교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형성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소망을 키우거나 또는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곳도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생의 실험실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가정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 진로를 결정해 줍니다. 스튜어트 이 로젠버거 박사는 그의 저서, 확신에 이르는 길(The Road to Confidence)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새로운 발명과 현대적인 디자인, 유행과 숭배 대상을 만들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우리의 가족을 만족스럽게 대체할 만한 것을 발명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확신에 이르는 길 (The Road to Confidence)* [1959년], 121쪽)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조금 일찍 누리는 천국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이 기도와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대회 보고, 1944년 4월, 32쪽)

어린이들이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지상에 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그러한 아이를 그들의 팔과 생활에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하나인 그 아이에게 보통의 부모가 갖는 것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을 바치는 부모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여름에 애스펜 그로브 가족 야영에서 저는 태어날 때 다쳐서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하는 십대 딸에게 인내심을 갖고 음식을 먹이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의 머리와 목을 곧게 붙들고는 음식과 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년 동안 이 어머니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즐거움이나 음식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포함한 모든 일을 그 딸을 위해 해 오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감정은 우주나 지구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소설이나 역사책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잠자는 어린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부모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모든 곳에 계시는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가 담긴 찰즈 엠 디킨슨의 표현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우상
모습을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들이네
햇빛은 숱 많은 그들의 머리카락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눈에서 빛난다네
이 작은 아이들은 가정과 하늘에서 와서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드네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에게 비유하신 이유를 깨달았네.

(The Children, 잭 엠 라이언, *말일성도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시 모음*[1996년], 21쪽)

매일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배우고 이해하는 데 매우 빠르며, 때로는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의 저자인 찰즈 디킨즈는 보잘 것 없지만 오랫동안 고대하던 성탄절 만찬을 위해 모여 있는 가난한 봅 크래칫 가족을 묘사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가장인 봅이 그의 어린 아들인 타이니 팀을 목말 태우고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타이니 팀은 "작은 목발을 갖고 다녔으며 다리에는 쇠 버팀대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봅의 아내는 남편에게 "팀이 착하게 잘 놀았어요?"라고 물었습니다.

"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히 행동했소. 팀은 약간 생각에 잠기며 혼자서 한참 앉아서 당신이 이제껏 들어 본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한 말을 하더군.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교

회에서 자기를 보기를 바란다고 팀이 내게 말했다오. 사람들이 불구자인 자기를 보고, 절름발이 거지들을 걷게 하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만드신 이를 성탄절에 기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크리스마스 캐롤과 하어스의 크래칫*[연대미상], 50~51쪽)

찰즈 디킨즈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가장 최근에 우리에게로 온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독창적이며 매우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얼마 전 저의 생일에 귀여운 어린 소녀가 저에게 손으로 쓴 생일 카드와 함께 그 소녀도 좋아하고 또 제가 선물로 받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작은 장난감 자물쇠를 넣은 봉투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운 광경 중에서 어린이가 뭔가를 줄 때만큼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어린이가 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린이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줍니다. 어린이는 여러분이 결코 읽을 수 없었던 한 권의 책처럼 세상을 여러분에게 열어 보여 줍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찾아야 할 때 그것은 항상 삐뚤삐뚤 풀로 붙인 우스꽝스러운 작은 것이나, …광대와 같이 보이는 천사 같은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음을 결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 리 런백, *비츠 앤 피스*, 1990년 9월 20일)

제니가 저에게 준 선물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귀여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렇게 하시려는 소망을 가지셨다는 것을 믿는 한결같은 신앙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과거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야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로 잘 알려진 배리 보넬과 데일 머피의 경험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 개종자였는데, 데일 머피가 배리 보넬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배리가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라고 묘

만일 모든 어린이가 사랑 가득한 부모와 안전한 가정과 관심을 가져 주는 친구를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한 일이 1978년 시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타율이 고작 2할로 무척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타격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에 화가 나서 괴로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데일 머피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였을 때 실제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팀을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릭키 리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릭키의 임종이 임박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배리는 위로의 말을 생각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으나 어떠한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주저하다가 두 선수가 모두 다음 경기에서 자기를 위해 홈런을 칠 수 있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배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탁은 사실 그 날 밤 두 개의 홈런을 친 데일에게는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타격 성적이 안 좋은데다 일년 내내 홈런을 한 개도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따뜻한 느낌을 느꼈고 릭키에게 그를 위해 홈런을 날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배리는 시즌 동안 유일한 홈런을 쳤습니다." (제임스 엘 아이슨, *메이저 리그의 몰몬들*[1991년], 21쪽) 한 어린이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어린이의 소망도 성취되었습니다.

안전의 필요성

만일 모든 어린이가 사랑 가득한 부모와 안전한 가정과 관심을 가져 주는 친구를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린이들이 모두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아버지가 야만적으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는가 하면 그런 학대를 직접 당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사악하며 부끄러운 일입니까!

곳곳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는 "문에 부딪쳤다"거나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들으면서 상처가 나고 두들겨 맞은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못살게 구는 거짓말쟁이들은 언젠가 자기들의 혐오스런 행동에 대해 커다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대와 때로는 근친 상간의 희생자가 된 말 없는 상처받은 어린이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 지방 법원의 판사는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 다시 우시더라."

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는 문명 사회에서 가장 사악하고 파괴적이며 퇴폐적인 범죄에 속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의 건수가 놀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정은 이 불쾌한 행위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같이 가증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에게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혹독한 말로 비난합니다. 어린이를 구조하고 양육하며 사랑 받게 하며 고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학대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그의 행동이 처벌을 받게 하며 그로 하여금 그 같은 사악하고 악마 같은 행동을 그만두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행동을 알고도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책임의 일부를 나누어 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에 따른 형벌의 일부를 겪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또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니파이삼서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이

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이러한 사랑에 관한 더 감동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 사람들을 가르치신 일,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중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 다시 우시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 (니파이삼서 17:21~24)

여러분은 이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어린 손자가 축복 받은 것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 할아버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아내 디에나와 저는 지금 오하이오주 잭슨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일 때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오기 직전에, 두 살 반이었던 우리 손자 알제이는 사시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손자 알제이와 제가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들과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수술은 잘되었으나, 가족 가운데 아무도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두려웠기 때문에 손자는 수술을 전후하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약 6개월 후, 우리가 아직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손자는 다른 쪽 눈의 사시를 교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화를 하여 두 번째 수술에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곳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거리가 너무 멀고 선교 사업 때문에 손자와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손자가 수술을 받는 동안 주님께서 그에게 위안을 주시도록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수술이 끝난 후 즉시 전화를 하여 손자가 이전에 받은 수술을 기억하고는 부모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술대에 누워 의사들을 위해 안경을 벗었으며 침착한 마음으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좋았으며 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오후에 손자는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수술을 받는 동안 할아버지가 함께 계셨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가 같이 계셔서 모든 일이 잘되게 하셨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취 의사가 마치 그의 할아버지인 것처럼 그 어린 소년에게 보이게 하셨던 것이었으나,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의 3,000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제이 형제님, 할아버지께서 형제님의 침대 곁에 안 계셨을지라도 형제님은 할아버지의 기도 속에 그리고 그분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형제님을 안아 주셨으며 형제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에게서 축복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입니다.(시편 127:3)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특별한 친구들인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의 삶에 은총이 되는 자녀들을 기쁘게 우리 가정으로 맞이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다.

2.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배움의 교실을 갖고 있다.

3. 모든 교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실은 가정이라는 교실인데, 이곳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형성된다. 소망을 키우거나 또는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곳도 바로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생의 실험실이다.

4. 모든 어린이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안전한 가정과 관심을 가져 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장례식에서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배경:* 교회의 대관장이 된 후에, 힝클리 대관장이 처음으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90세에도 변함없는 봉사의 모범

대관장이 되었다고 해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목표는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것이다.

왼쪽 아래: 1998년 3월,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서 요셉 스미스 일세의 통나무 집 복원 헌납식에서.
오른쪽 아래: 1998년 3월 3일 유타 몬티셀로 성전에서 건축 상황을 점검하면서.

장례식 사진 촬영: 척 윙, 데저렛 뉴스의 허락을 받아 게재;
유타 몬티셀로 성전 사진 촬영: 로빈 램세이

19년 전, 대관장단의 보좌로 부름 받았을 당시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71세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기력이 쇠해져 가는 나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소의 성품대로, 새로운 부름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추진력 있게 일했다.

이제 6월 23일에 90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수록된 사진들을 통하여서 그가 거의 20년 동안 대관장단에서 봉사하면서 보여준 놀라운 봉사의 일면을 볼 수가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문자 그대로 그의 온 생애를 교회 봉사에 바쳤다. 1930년대 중반 영국에서 젊은 선교사로서, 그는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영향력있는 인사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전하는 일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세 분의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하였다. 왼쪽부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함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가운데)과 당시 제 2보좌였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함께;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과 함께.

기탄없이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그에게 가르쳐준 임무들을 수행하였다. 복음 메시지에 대한 그의 깊고도 타는듯한 믿음은 그 이후의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더 정련되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1935년에 그는 교회의 새로 생긴 라디오, 공보 및 선교 문헌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일과 이와 비슷한 다른 일에서, 그는 20년 이상을 일하면서 1958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교회의 선교 사업과 그 성장에 기여를 하였다.

그는 1958년 4월 6일에 십이사도 보조로 그리고 1961년 9월 30일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거의 20년을 봉사하다가, 1981년 7월 23일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보좌로 부름 받았다. 1982년 12월 2일에는 대관장단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그는 1995년 3월 12일에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임되기 이전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과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제1보좌로 봉사하였다.

1981년 10월, 대관장단에 부름 받은 이후의 첫번째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부대관장은 "위대하고, 영감 받은 네 분의 지도자, 곧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아래서 총관리 역원으로 행하였던 봉사에 대해 회상하면서 말씀했다.("신앙: 종교의 정수,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4쪽) 그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난관, 발전, 그리고 성장을 회고하면서, "주님의 사업의 위대한 발전에" 대하여 감사의 음성을 높였다. 그리고서 그는 "이러한 부름이 길든 짧든 사랑과 신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5~6쪽)

그가 회원들이 참석한 성회에서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된 다음 날인 1995년 4월 2일, 그는 테버내클의 연단에 서서 교회에서의 그의 봉사를 간략히 뒤돌아보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그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저는 여러분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와 지지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과 주님께 서약합니다.

"저는 이 신성한 직분을 맡기에 그리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나이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 귀중한 전능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직도 젊은이와 같은 충만한 열정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9쪽)

그는 머지 않아 친숙하게될 한 가지 주제, 곧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나누어 가지자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교회는 대관장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받들

위쪽: 1998년 2월, 최초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교회 대관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초등회 어린이들.
배경: 1983년 연차 대회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힝클리 대관장.

킴볼 대관장과의 사진은 *데저렛 뉴스*의 허락하에 게재;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진은 존 엘 하트 촬영, *처치 뉴스*의 허락하에 게재;
배경 사진은 제드 클라크 촬영

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돕고자 우리는 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위대한 목적 안에서 한 마음, 한 믿음, 한 신앙입니다.…

"…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행하셨듯이 힘써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9~70쪽)

힝클리 대관장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서약을 계속해서 성취하여 나가고 있다. 봉사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회원이 하나의 본보기로서 삼을 수도 있는 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

배경: 1999년 8월,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의 헌납식에서 말일성도들과의 모임. 힝클리 대관장은 그 이전의 모든 대관장이 헌납하였던 성전의 수를 합한 것 보다도 많은 수의 성전을 헌납하였다.

왼쪽 아래: 1998년 11월, 허리케인 미치가 지나간 후에 온두라스에서 청소 작업을 돕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왼쪽 가운데:* 1998년 2월, 카나리아 제도에서 어린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오른쪽 아래:* 1997년 7월 24일, 컨퍼런스 센터 기공식에서.

배경 사진은 존 엘 하트 촬영. *처치 뉴스*의 허락 하에 게재.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과 권고

분노

"형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경계하도록 합시다. 마음에 조그만 분노라도 생기게 되면,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웃는 얼굴로 들어와서는 여러분의 팔을 뻗어 여러분의 아내를 감싸안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고 또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도록 합시다. 말일성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듯이 친절하고 또 상냥하게 그들과 생활하십시오."(솔트레이크 홀라데이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1998년 2월 7일)

개종자를 도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커다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며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양육되고 도움을 받아 발전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더이상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전세계의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그토록 깊이 느꼈던 사항입니다."(유타, 우즈 크로스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1998년 1월 10일)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구세주께서는 침례 곧 물과 영의 침례가 모든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과 침례가 없이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침례 없이 지나간 시간의 많은 세대 동안에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까! 그들의 생애 동안에 이런 구원의 의식을 갖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받으러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조지아, 애틀란타 지역 대회, 1998년 5월 17일)

주님의 사업을 행한다면 알게됨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사업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신의 은사를 통하여 제 가슴에 늘 지니고 있는 지식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똑같은 지식을 여러분 마음에 지니고 있다는 확신에 대해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버몬트, 벌링턴 모임, 1998년 10월 14일)

배움

"진리의 이 위대한 책 [몰몬경]은 참되고 훌륭한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으며, 우리의 지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솔트레이크 할러데이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1998년 2월 7일)

가정에서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과 화평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성실과 신앙, 정직, 그리고 진리를 지닌 남자와 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지니고 여러분 앞에서 고귀하게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 속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여러분의 두무릎을 꿇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날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이며,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오게 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의 모임, 1998년 2월 20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이며,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생득권 같은 어떤 것,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는 신성한 어떤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위대하신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들으시고, 귀기울이시며,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제 가슴에 갖고서 제가 두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적이며 또 놀라운 일입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의 모임, 1998년 10월 18일)

주님의 사업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분께서 맨 앞에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모든 세대 중에서 그분의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최고 정점의 시기입니다. 이 지상에 구세주께서 계셨을 때, 사도 시대, 그 이후의 환난의 시대 곧 수 세기 동안의 암흑 시대, 그리고 종교 개혁에 약간의 빛을 주고 기독교 세계에 이해를 가져오려 노력하였던 종교 개혁가들이 일을 했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과거 경륜의 시대의 모든 것이 하나로 회복된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위대한 시대야말로 이 사업을 이루는데 있어서 정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 영광의 시대이며, 여러분과 저는 운이 너무나 좋게도 그 시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또 진리와 의 그리고 충실함 안에서 주님을 섬겨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분으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 (마태복음 25:23)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무 책임자 세미나,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998년 4월 10일) □

예언자를 따름

몰몬경을 통해 얻는 통찰력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즈

리하이의 후손들이 한 경험을 통해 주님의 예언자의 말에 귀기울이고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몰몬경은 첫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예언자를 따르는 것에 관한 하나의 지침서로 볼 수 있다.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따를 때 축복이 온다는 분명한 본보기가 나타나 있으며, 또 예언자의 가르침을 거절할 때 따르는 위험에 관한 분명한 본보기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메시지들은 그것이 기록되었을 때만큼이나 오늘날과도 관련이 있다. 참으로, 몰몬경 자체는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여 따랐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리하이와 몰몬경의 다른 예언자들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라는 말씀에 대한 생생한 본보기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니파이이서 25:9), 그분께서는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들을 항상 성취하신다.(앨마서 50:19~22; 니파이삼서 1:20; 이더서 15:3 참조)

불순종에 따르는 위험

리하이의 후손의 역사는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여 따르지 않으려 할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전형적인 예이다. 몰몬경을 보면,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속박괴(모사이야서 12:2; 21:13 참조) 기근(힐라맨서 11:4~5; 이더서 9:29~33 참조), 속임과 간악함(니파이삼서 2:1~3), 그리고 슬픔과 멸망(앨마서 9:18; 16:9; 나파이삼서 8장; 몰몬서 6장; 이더서 15장 참조)을 겪게 되었다. 나아가 몰몬경은 사람들이 예언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을 때,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그치게 되며(니파이일서 7:14; 몰몬서 5:16; 이더서 15:19 참조), 또 그들이 사탄의 힘에 완전히 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힐라맨서 16:22~23; 이더서 15:19 참조) 분명히 하여 주고 있다. 일단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그들은 진리에 눈이 멀게 되며 그들에게 전하여진 예언자들의 "말씀을 알아 듣지 못하"(앨마서 10:25)게 될 것이다. 의롭지 못한 이들은 예언자를 따르는 대신에 결국 예언자들과 싸우게 된다. (니파이이서 10:16 참조)

야곱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해되지 못할 비밀스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전한 "간결한 말씀"을 경멸한다.(야곱서 4:14) 현재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인 딘 엘 라슨 장로는 이러한 상황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한 본보기로 묘사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간결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온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그들에게 전해 준 궤변과 속물 근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신중함이 지나쳐, 신앙의 기본을 제공해주는 근본적인 복음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이며 영적인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공론적이며 이론적인 것에 탐닉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야곱서 4:14)에 빠지게 되자, 참된 메시야의 구속의 사명에 대항 이해와 신앙을 잃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정도를 지나쳐",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11쪽)

예언자에게 즉시 귀기울여 따르는 것의 중요성

아빈아다이의 성역은 예언자의 경고에 즉시 귀기울여 따르는

몰몬경은 첫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예언자를 따르는 것에 관한 하나의 지침서로 볼 수 있다. 참으로, 몰몬경 자체는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여 따랐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빈아다이가 처음으로 리하이-니파이 땅의 니파이인들에게 경고를 하였을 때, 회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진대 속박에 놓일 것이라는 그의 경고에 어느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모사이야서 11:21 참조) 그러므로 아빈아다이가 이 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의 경고 내용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그 때에 아빈아다이는 니파이인들이 속박에 얽매이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모사이야서 12:2, 8 참조)

노아 왕과 그 백성의 대부분은 아빈아다이의 경고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멸망되거나 속박에 놓이게 되었다. (모사이야서 19:15~20; 21:4~15 참조) 하지만 앨마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빈아다이의 메시지에 귀기울여 따랐고, 멸망을 모면하였으며, 예언으로 약속되어 있던 속박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짐이 가볍게 되었음을 알았다.(모사이야서 17:2; 18:6~7, 34; 24:8~17 참조)

앨마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예언자의 권고를 신속히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순종이나 회개를 늦추는 것은 슬픔과 후회로 연결된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 말씀하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이링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예언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감 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돕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그가 맨처음 부탁했을 때입니다. 그 후 그가 계속해서 부탁할 때마다 거절한 사람들은 영에 대한 민감함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의 요구가 더욱 바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영감 받은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거나, 나는 그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를 통해 그 권고를 확신하고 따랐을 때마다 저는 제가 더욱 안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따라 가는 동안, 저는 그 길이 저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험한 곳이 평탄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찬 보살핌으로 준비해 두신 안전한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때로 그 길은 아주 오래 전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5쪽)

몰몬경은 앨마 이세, 앰율레크, 지에즈롬과 같이, 살아있는 예언자를 따르기 위하여 생활 방식이나 정치적으로 인기있던 견해를 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버리는 일은 때때로 친구와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결과를 가져와 종종 어렵기도 하다.(앨마서 14:6~7; 15:3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예언적인 선언이 우리의 자부심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 관계와 갈등을 일으킬 때가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가 저의 사회적, 직업적, 정치적 생활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데 결코 주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였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1897~1988)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하게 되어야 할 대로 되는 것들〔1978년〕, 73쪽) 궁극적으로 예언자를 따르기로 한 앨마, 앰율레크, 지에즈롬, 그리고 롬니 부대관장의 선택은 그들의 생활에서 더욱 큰 화평, 기쁨, 그리고 지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다.

예언자를 비판하지 않음

레이맨인 사무엘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언자의 말씀이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회개를 가르쳤으며,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전해주는 것을 예언하였다.(힐라맨서 13:2~3 참조) 사무엘의 예언은 두 가지 측면, 곧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힐라맨서 13:5~6, 30~33; 14:11~13 참조)

그가 가르쳤을 때, 의롭지 못한 이들은 화가나서, 그의 힘을 악마에게서 나온 것으로 돌렸으며, 그들의 논리를 사용하여 예언의 말씀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힐라맨서 16:2, 6, 16~18 참조) 그들은 예언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 내려오는 사악한 전언으로 어떤 누구도 그 전언의 참됨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힐라맨서 16:20 참조)

예언자의 권고를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 멀리 하려는, 충실하지 못한 이들의 이러한 경향에 관하여, 대관장단의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1898~1982)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자신이 정도에서 벗어나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향상 발전에 노력하기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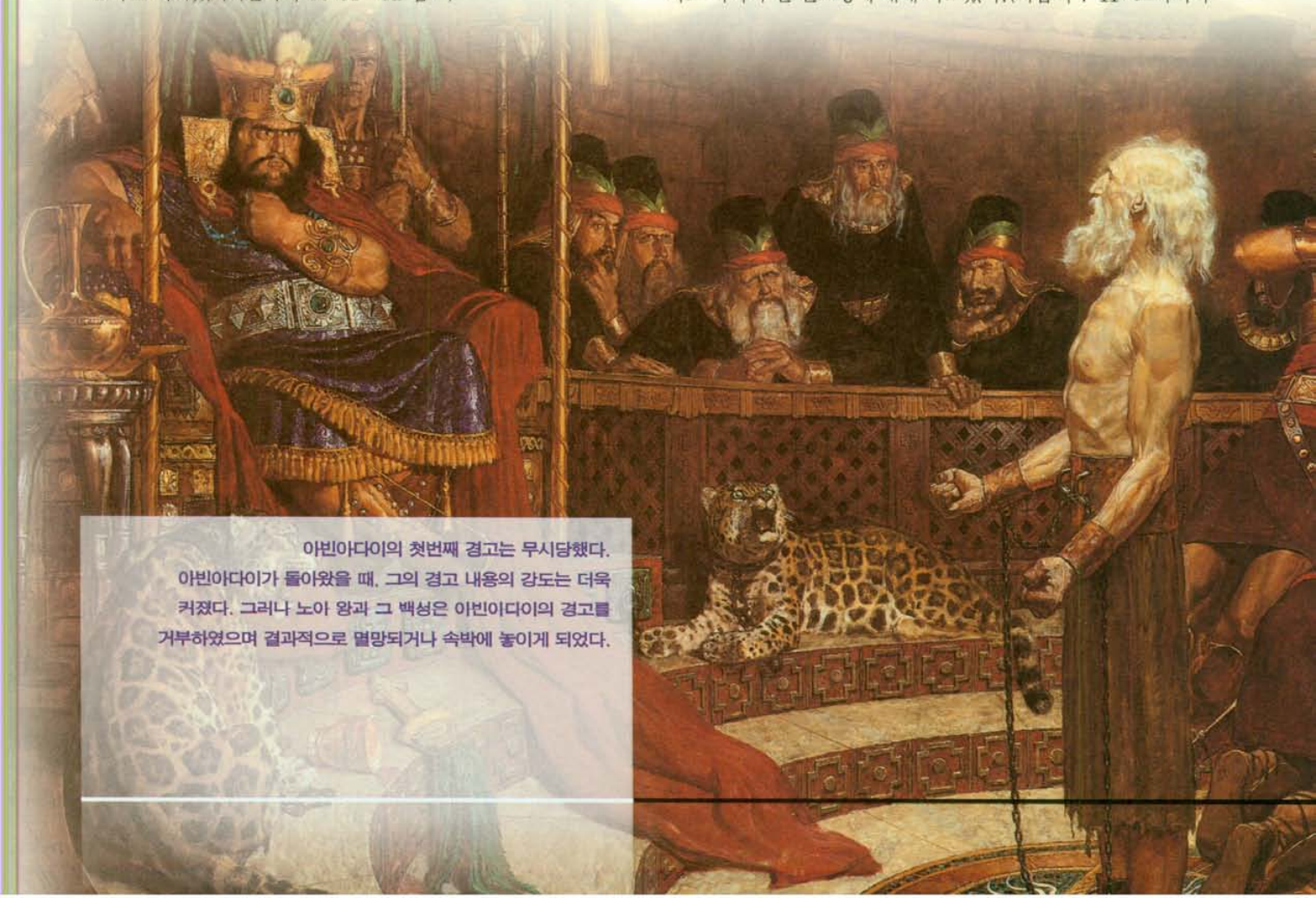
는 남의 약점이나 과오에 열을 올리게 되며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교회의 교리를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예외없이 자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며 복음의 가르침대로 따라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도의 벗*, 1973년 2월호, 38쪽)

거듭하여 몰몬경에서는 사람들이 예언자의 지혜와 성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가 반복해서 일어났다. 처음부터 레이맨과 레뮤엘은 예언자이자 아버지인 리하이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렘은 야곱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야곱서 7:7 참조), 코리호어는 앨마의 정직성과 동기에 문제를 제기했다.(앨마서 30:31~32 참조)

비록 예언자도 인간이며 약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니파이 일서 16:20; 이더서 2:14 참조),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들도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족된 형제", *성도의 벗*, 1982년 7월호, 61쪽)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한결같은 외침

예언자를 따르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몰몬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구세주에 대해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르쳤다.(야곱서 7:11; 모사이야



아빈아다이의 첫번째 경고는 무시당했다. 아빈아다이가 돌아왔을 때, 그의 경고 내용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노아 왕과 그 백성은 아빈아다이의 경고를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멸망되거나 속박에 놓이게 되었다.

어느 세대에서나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 그 분들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

서 13:33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고대의 예언자 지노스, 지노크, 니움은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에 대해 증거하였다.(니파이일서 19:10 참조)

• 리하이는 오직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니파이이서 2:8)

• 니파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라고 선언하였다.(니파이이서 25:26) 그는 자신이 이사야를 인용한 이유가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설득하여 "주 저희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니파이일서 19:23)

• 야곱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의 커다란 바램을 표현하였다.(야곱서 1:8)

• 이노스는 그의 평생 동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언하였다.(이노스서 1:26)

• 예이롬의 시대에 예언자들은 "메시야를 기다리며… 이미 그가 오신 듯이" 그분을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하였다.(예이롬 1:11)

• 아맬레카이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옴나이서 1:26)

• 베냐민 왕은 많은 거룩한 예언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도록 준비시키는데 오랫동안 수고를 기울였다.(몰몬의 말씀 1:16~18; 모사이야서 1:11; 3:17; 5:8~10 참조)

• 아빈아다이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온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모사이야서 13:28, 33 참조)

• 앨마 이세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몸 안에 지니고 또 그들의 선한 목자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할 것들을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다.(앨마서 5:14, 38 참조)

• 앨마와 앰율레크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그의 대속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가 될 것이라고 가난한 조램인들에게 가르쳤다.(앨마서 34:6, 9 참조)

• 힐라맨의 아들 힐라맨은 그의 아들들에게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 곧 반석이신 구세주" 위에 세우는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다.(힐라맨서 5:12)

• 레이맨인 사무엘은 니파이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게 되어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니파인들 사이를 다녔다.(힐라맨서 14:12)

• 구세주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시기 직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곧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증거하였다.(니파이삼서 6:20 참조)

• 구세주께서 리하이의 후손들에게 나타나시고나서 오랜 후에도, 예언자 몰몬과 모로나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이가 되는 것과 그에게 나아오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공포하였다.(모로나이서 7:41, 48; 10:30, 32~33)

따라서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가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의 본을 따라 끝까지" 견딜 때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증거하였기 때문이다.(니파이이서 31:16)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를 때 오는 안전

어느 세대에서나 우리는 예언자의 권고를 취하여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여야 한다. 예언자, 특별히 우리 자신의 시대의 예언자를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 니파이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의 말씀을 믿는 자들" (니파이이서 5:6)은 "행복하게 살"(니파이이서 5:27)도록 인도되었다. 감사하게도 예언자를 따르는 사람이 수적으로 적을 때조차 커다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앨마 일세와 그의 백성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모사이야서 18:24 참조) 니파이인들의 커다란 멸망에서 목숨을 구하였던 사람들은 그들이 "예언자들을 영접"(니파이삼서 10:12) 하였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다. 각각의 니파이인 세대에게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가르치고, 경고하며, 그분의 오심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키도록 하셨다. 주님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같은 이유로 예언자를 보내고 계신다. 현재 대관장단 제 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교회의 대관장이 교회의 계시자로서 인도를 받으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그가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권고를 따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계속되는 계시",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12쪽) □

관계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화를 낸다고 어떤 일이 해결될까요?

(시편 37:8; 출애굽기 20:13; 마태복음 5:21~22; 교리와 성약 59:6 참조)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우드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미래에 대해 준비하라고 권고하신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교리와 성약 88:119)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자립

우리는 먼저 자신의 자원에 의존해야 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원리로서 자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미리 계획하고, 자원을 비축하기를 회원들에게 권유합니다. 실업이나 질병 같은 재난들은 종종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이 일은 한 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50쪽)

준비 방법

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자립해야 할 여섯 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 직업, 건강, 자원 관리, 가정 비축, 사회적 정서적 및 영적인 힘.

영적 및 현세적인 지식에서 균형 잡힌 교육은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웃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교육은 우리에게 취업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건강은 우리 자신과 가족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데 필수적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준수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의료 검진을 받고, 자신과 집을 청결히 하고, 우리 몸과 정신에 해로운 물질이나 습관을 피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일조와 헌금을 내야 한다. 불필요한 빚을 피하고 미래를 대비한 저축을 하기 위해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의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한 식료품과 돈,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의복을 비축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 최선의 목표는 일년 치의 생필품을 비축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식료품 비축이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회원들 중에는 일년치의 물품을 비축할 돈이나 공간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고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준비할 수 있다.

조이와 제프 영 부부는 14개월간의 실직 기간을 견디어 내는 동안, 적당한 자원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이는 이렇게 설명했다. "결혼 생활 내내 우리는 비상시를 위해 준비하라는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기본 식품을 비축했어요 …저는 또한 가사 기술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조이와 제프는 서로 힘을 북돋으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했다. 조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의 튼튼한 기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어야 했어요."("실직 중에도 살아남음", *엔사인*, 1991년 2월호, 42, 44쪽)

가족 및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욱 잘 준비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 의롭게 삶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준비된 백성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1988년 6월 24일, 대관장단 서한)□

사랑의 봉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오는 행복에 대해 종종 말씀하셨다. 그 행복은 반드시 이 지상의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생전에 구원의 의식을 받지 못 했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침례를 받으러 주님의 집에 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16쪽)

다음 기사들에서 우리는 복음의 의식을 통해 이제 그들의 조상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확대시키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다. 그들의 노력은 실로 사랑의 봉사라 할 수 있다.

엘리야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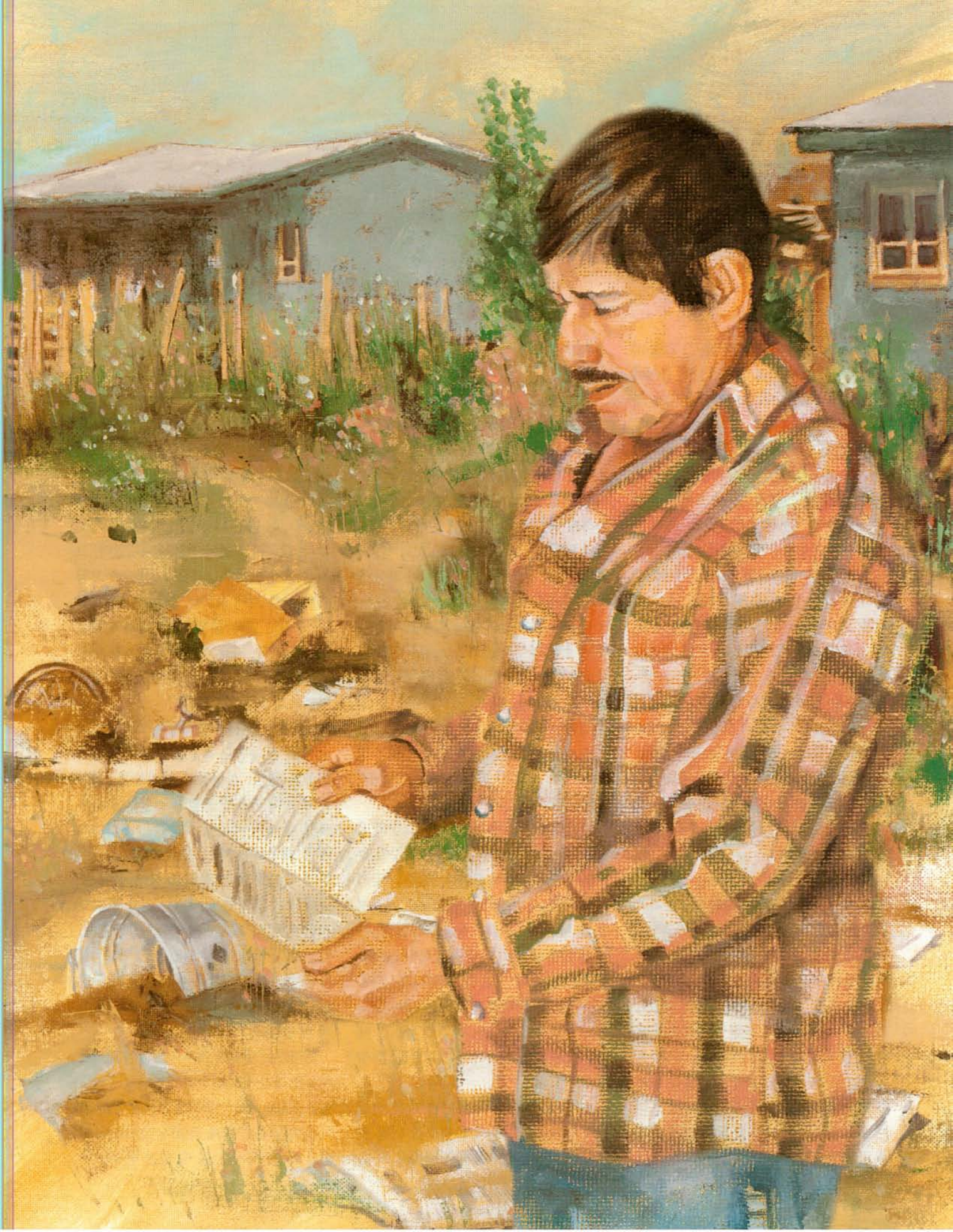
마르코 안토니오 파네스 스파노

몇 년 전, 몰몬경 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리 반 교사였던 페르난도 아귈라 형제는 자신의 부친이 겪었던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주었다. 그의 부친인 산티아고 아귈라 이세는 조상들의 계보에 관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성전 의식에 필요한 가족 성명을 상당 수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의 여러 가계 중 할머니 한 분에 이르러서 정보가 끊겨버렸다. 많은 여행과 조사를 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찾아야한다는 영의 긴박한 느낌을 받았다.

현재 칠레의 교회 종교 교육원의 시간제 코디네이터로 있는 페르난도 아귈라 형제는 이렇게 회상했다. "하루는 제 부친께서 오소르노 시에서 동쪽으로 90㎞ 떨어져 있는 한 작은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곳은 부친이 살고 계시는 털카우노에서 500㎞ 거리에 있었어요. 최근에 부친이 친지들을 방문해서 계보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던 곳이었죠. 제 부친께서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친척들은 금새 다시 돌아온 부친을 보고 놀라면서 그들이 가진 계보에 관한 정보는 이미 다 주었음을 확인시켰고, 부친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급히 돌아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제 부친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찾았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부친은 한 아저씨 댁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때, 다른 길로 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친은 어디로 가는 지, 왜 가는지도

그 공터에서 부친은 먼지 묻은 노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 분의 조부모의 결혼 증서였다.



모른 채 그 느낌에 따랐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 부친은 쓰레기로 뒤덮인 넓은 공터에 이르렀고, 그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부친은 공터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멈추어 서서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그렇게 먼 그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알아보려던 것이었죠.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시던 제 부친은 먼지 묻은 노란 종이 쪽지 하나를 보고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 낸 뒤 자세히 보신 부친은 그것이 자신이 놓친 이름들과 그 밖의 가족 정보가 들어있는 부친의 할머니 결혼 증서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증서는 조상들을 위한 성전사업에 필요한 열쇠가 되었지요."

아귈라 형제는 이야기를 끝내면서 호주머니에서 비닐로 씌워진 결혼 증서를 꺼내어 우리 모두가 돌아가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너무나 벅찬 감정에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간증을 전한 후에 그 형제는 엘리야의 영이 계속 그의 가족에게 노력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으며, 엘리야의 영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므로 우리는 그 영을 얻기 위해 열심히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조상들을 찾았고 가족 중 일부 세대에 관한 작업을 완수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여러 번 성신의 속삭임을 느꼈다. 나의 경험은 아귈라 형제가 전한 것처럼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 각자가 조상을 찾을 때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생의 기쁨을 발견함

이고르 부르체프

1991년 6월에 나는 아내 앨라와 아들 알렉스를 데리고 구 소련의 벨라루스에서 덴마크로 이시했다. 마취가인 나의 직업 때문에 나는 특별히 영어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덴마크, 코펜하겐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부의 두 자매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영어 회화 반에 등록하게 되었다.

나는 영어를 좀더 많이 배우고 싶었다. 나는 소련 정부가 글라스노스트(1985년, 고르바초프가 경제, 정치 등의 제반 문제에 관한 토론을 개방한 정책) 기간 중, 종교 금지를 해제시킨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일반 교회의 의식이 불편했으므로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달랐다. 그들의 우정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들이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니파이이서 2:25)고 가르쳤을 때 나는 뼛속 깊이 전율을 느꼈다. 나는 생애에 두 번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 하나는 앨라와 결혼한 날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 알렉스가 태어난 날이었다. 나는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기쁨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앨라와 내가 만난 다른 선교사와 회원들은 우리에게 감명을 더해 주었다.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회원들이라면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임에 틀림없어요."라고 앨라가 내게 말했다.

앨라와 나는 1991년 8월에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마음에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으며,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매 교회 모임마다 침례 시에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더욱 침착하고 인내하며 친절하게 되었다. 가끔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3년 7월에 앨라와 알렉스, 그리고 나는 스웨덴 스톡홀롬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했다. 성전장과 메이트론, 레이드와 돈나 존슨을 포함한 친구들에 둘러싸인 채 성전 제단에 무릎꿇은 우리에게 처음 개종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다시 찾아들었다. 우리는 비에 젖어 추위에 떠는 불쌍한 잃어버린 양들과 같았지만 이제 이 교회에서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피난처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복음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감긴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알고 사랑하게 해주었다.

돌아가신 앨라의 조부모를 위한 의식을 비롯한 대리 의식을 하면서 성전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성전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아

앨라와 나는 1991년 8월에 침례를 받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1993년 7월 1일, 앨라와 알렉스와 나는 스웨덴 스톡홀롬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다.

직 다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할 수록 더 큰 행복을 맛보는 것 같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알게 된 것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개종한 이래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

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대부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회원들의 모범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주님이 내 눈을 열어 주셨을 때

태요 엠 투어슨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군*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잠시 읽던 경전에서 눈을 떼었다. 나는 열왕기후서 6장의 예언자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다. 시리아의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 성에 군사를 보냈다. 도단이 시리아의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외쳤다.(15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대답했다.(16절)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아주 극적인 장면과 함께 사환은 영안이 열려 그들이 서 있는 산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게 된다.(17절)

나는 재빨리 그 구절에 표시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은 나에게도 이런 나타남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나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면서 정보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었다. 나의 친척 대부분은 조상들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었으며, 침례, 결혼 및 사망에 관한 기록 문서들은 대부분이 이차 세계 대전 시의 필리핀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나는 모종의 극적인 사건을 기대하면서 노력을 계속 했다. 나는 꿈이나 기타 신성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들이 찾던 정보를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옛 기록들을 찾고 묘지를 방문하는 동안 어떤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특별한 꿈도 꾸지 않았고, 영의 세계에서 온 방문자도 없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길이 열려 있었다. 언젠가 지역 가족 역사 센터에서 어떤 대리 의식자가 마이크로필름을 남겨두고 갔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 나는 그 속에 19세기 우리 마을의 인구 조사 기록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기록 속에 모든 가족들의 출생과 사망 일자 및 직업에 관한 목록이 들어있음을 보고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해서 나는 수주 일에 걸쳐 가족 계보를 다시 작성했다. 결국 나는 아버지 쪽의 6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 친척 한 명에게 내가 한 일을 보여 주었다. "넌 내 나이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보다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그러나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 쪽 가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남쪽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살고 계셨고 나에게는 거기까지 갈 여비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너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가족 모임에 초대하셨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놀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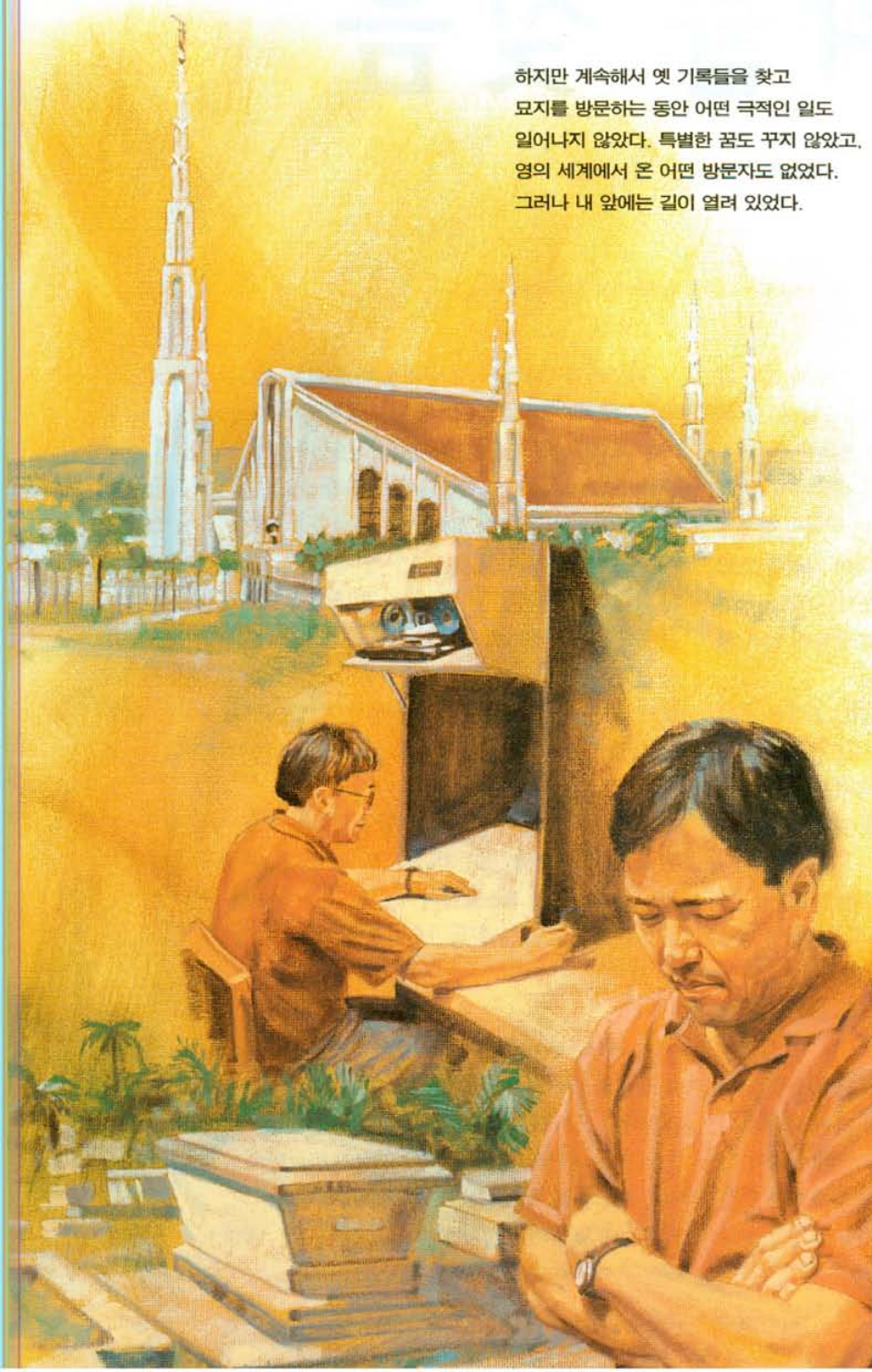
"언제요?" 나는 기쁨에 차서 물었다.

"가능한 빨리."

다행히도 우리는 비행기 표를 살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나는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의 친척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신속히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 86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제출할 수 있었다. 비록 내가 제출한 양이 어띤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2월의 어느 맑은 날 아침에 나는 마닐라 성전에 가서 조상들을 위한 대리 침례를 받았다. 침례탕에 서 있으면서 나는 나의 조상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듣기를 바랬다. 나는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어떤 모종의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면서 대리 침례를 계속하러 성전에 갔다. 나는 조상들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 친척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의 계보 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개종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상적인 나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옛 기록들을 찾고 묘지를 방문하는 동안 어떤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특별한 꿈도 꾸지 않았고, 영의 세계에서 온 어떤 방문자도 없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길이 열려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문했다. *주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죽은 자의 구속을 돕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며칠 뒤, 나는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성전에 갔다. 그곳에서 침례탕 속의 잔잔한 물을 응시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나는 내가 간과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나의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아주는 특권 그 자체가 곧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나는 조사하는 동안 발견했던 모든 귀중한 기록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주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주시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러자 구약에 있는 성구가 머리 속에 떠올랐다. 엘리사의 사환은 눈이 열려 주님의 군대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 이해하게 해 주셨던 것이다. 그날 밤, 성전을 나오면서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축복이란 극적인 방법으로 올 필요가 없으며, 생활 속에서 주님의 단순한 사랑의 표시를 이해하고 그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때로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아직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엘리사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떠올린다. □

마음의 평화를 찾음

그림: 팻 거버;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윅렌 루치 및 존 루케; 모델을 촬영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1970)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속성, 즉 영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노력도 않고 욕망과 정열을 만끽하며 탐닉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 가느냐, 또는 자기 수련을 통하여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즐거움을 향해 일어서느냐의 문제는 매일 매일, 아니, 자기 생애의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선택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대회 말씀, 1967년 4월, 7쪽)

우리가 내린 결정은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지만,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그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진로를 바꾸어 용서를 구할 때, 구세주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궁극적인 평안을 얻게 된다. 한 독자는 주님의 평안을 찾은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는 열일곱 살의 청녀입니다. 열한 살 때 침례를 받았죠. 열네 살에 비회원인 남자 아이와 데이트를 시작하며 저활동이 되었어요. 잘못된 일들을 했고 자신이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주님도 저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리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는 두 분의 선교사를 보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다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몰몬경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에 교회로 갔고 선교사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의 간증을 듣고 제 마음은 진정한 간증을 얻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금식을 하며 저는 복음이 참됨을 알게 되었으며 제가 이전에 했던 일들로 인해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지부장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부장님은 선도 평의회를 소집하셨고 저는 선도 조치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앨마서 36장 15~21절에 있는 앨마의 개종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앨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이 속죄하신 피의 권세로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아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몸에 큰 힘이 나는 걸 느꼈어요. 뺨에 흐르던 눈물은 기쁨의 미소로 바뀌었어요. 앨마처럼 감미로운 기쁨을 느꼈어요.

"저의 유예 기간이 끝나자 지부장님은 저를 청녀 서기, 지부 음악 책임자 및 초등회 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며,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

이 기사는 리아호나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연재물입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는 몇몇 복음의 기초 교리 및 원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리아호나에서 다루길 바라는 주제가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재물이 도움이 되었다면 알려 주시고, 리아호나의 어떤 기사가 가장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1쪽에 나와 있는 우편이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선한 일에서 손을 떼라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기도했을 때 그것이 옳았고, 그것을 신뢰했다면, 지금도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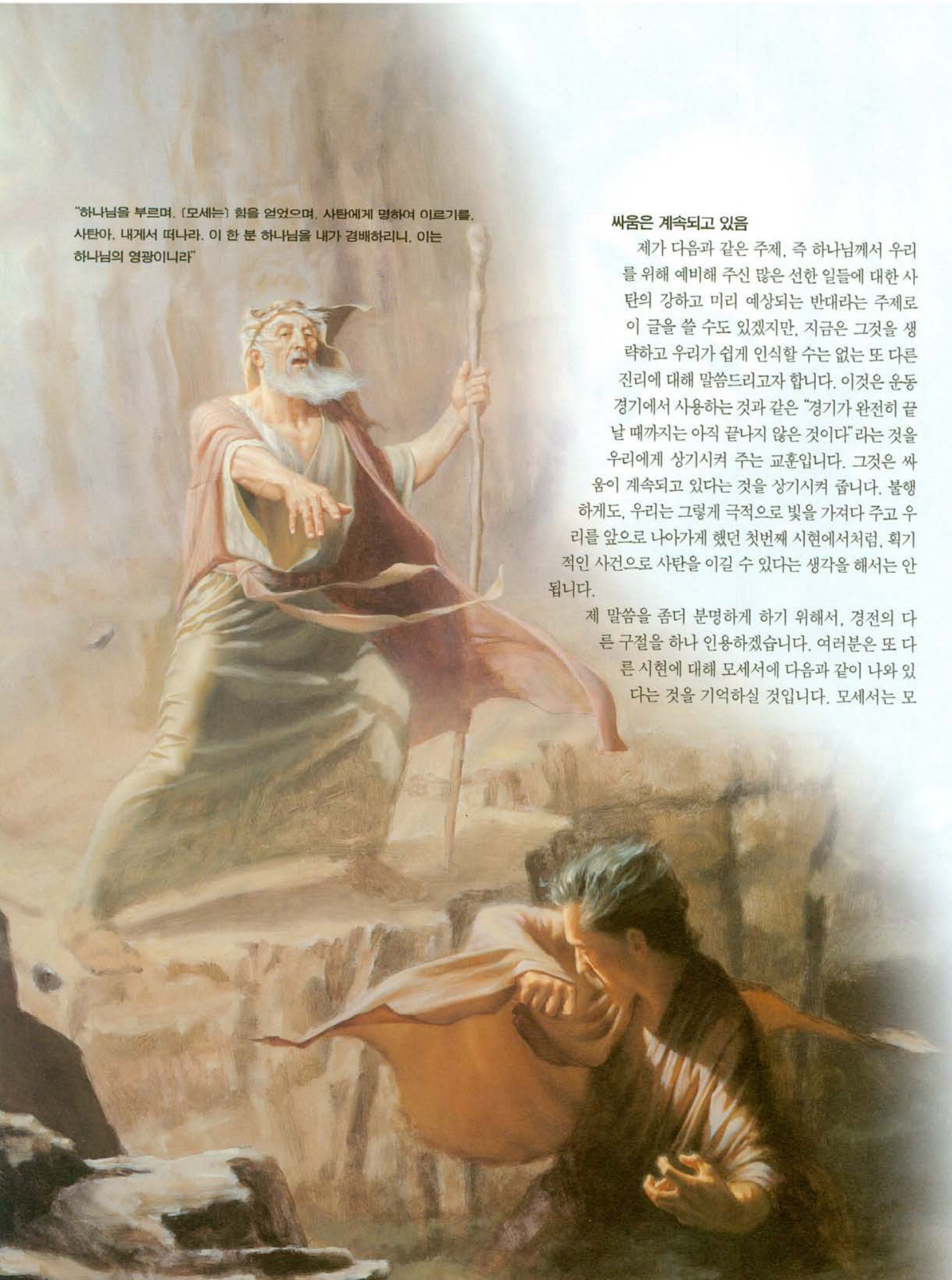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말일성도들이 사실상 경험하여 왔거나 곧 경험하게 될 첫번째 시현에 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기사에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건이 있기 전, 분명 위대한 영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역경이나 저항 및 암흑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도 가장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 기이한 사건에서 자신이 기도하자마자 놀라운 힘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캄캄한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그를 둘러쌌으며,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원수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리 위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이 점점 내려왔습니다. 빛이 나타났던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는 자신을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 그리고 승천과 같은 사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요셉 스미스서 2:15~17 참조)

우리들 대부분은 "범사에 서로 상대되는 것"의 주역을 맡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결국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암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운명입니까! 이것이 루시퍼의 운명이기 때문에, 리하이는 우리에게 "[루시퍼는]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려 하였"다고 가르칩니다.(니파이이서 2:11, 17~18 참조)

그림: 리즈 레몬, *첫 번째 시현*, 스티브 번더슨 사진



"하나님을 부르며, [모세는] 힘을 얻었으며, 사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이 한 분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싸움은 계속되고 있음

제가 다음과 같은 주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많은 선한 일들에 대한 사탄의 강하고 미리 예상되는 반대라는 주제로 이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략하고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는 없는 또 다른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극적으로 빛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첫번째 시현에서처럼, 획기적인 사건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전의 다른 구절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시현에 대해 모세서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서는 모

세가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경전에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고 말씀을 주고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나는 나의 솜씨를 네게 보여 주려니와… 모세가… 세상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매, 보지 못한 것이 세상의 티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으로써 이를 분별하였더라. 또 저는 세상의 주민도 보았나니, 저가 보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더라]"(모세서 1:1~2, 4, 8, 27~28 참조)

이 경험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주어진 위대한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세의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시, 몇 가지 놀라운 일, 빛나는 사건, 영감의 길이 열리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은, 그것을 받기가 그렇게 위험하고 진실된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의미없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니면 이후에 계속 방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몸소 모습을 드러내신 이후에 나타나 성내고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루시퍼의 행동이 매우 무시무시한 것이었지만, 그는 실질적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탄을 바라보고 이르기를 너는 누구냐?… 너를 경배할 그 영광이 어디 있느뇨?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지 아니하였더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려니와… 그러나 나는 육신 그대로 있으면서 너를 볼 수 있도다.…

"…네 영광은 어디 있느뇨? 이는 내게 암흑이 됨이로다.… 나는 너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미혹케 말라.…"

그 다음 기록에는 모세의 약한 모습과 두려움의 반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사탄이 큰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며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야말로 독생자니 나를 경배하라 하니,

"모세가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저가 두려워 할 때에 지옥의 비참함을 보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불러 힘을 얻더니, 명하여 가로되,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이 한 분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하니,

"사탄이 떨기 시작하고 땅도 동요하더라.…

"이에 사탄이 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이를 갈더니, 거기 곧 모세 곁에서 떠나가는지라."(모세서 1:12~16, 19~22) 우리는 그가 항상 다시 올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아니함

저는 우리 모두가 굳은 결심을 하고, 계시와 확신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화평을 얻은 후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직면하게 되는 반대와 저항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교회에 새로 가입했고 의심할 여지없이 영적인 경험을 하였으며 간증의 순수한 빛을 받았던 새로운 회원들을 격려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어떤 문제들은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오늘날 새로운 회원들에게 간절히 권고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회원들에게 간절하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싸움과 승리의 싸움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서는, 그와 같은 영원한 중요성과 영속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싸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바울은 새로운 간증, 개인적인 개심, 영적인 침례 경험이 그들을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날에 *저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런 다음, 그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히브리서

10:32, 35~36, 38~39)

말일성도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이거나,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거나,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후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항상 존재해 왔던 방법이긴 하지만, 바로 바울이 말했던,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황해하거나 후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어떻게 느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요셉 스미스가 사탄과 직면했을 때 그들을 구하였던 것은 바로 그 불굴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을 구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교회에 새로 가입하였고 의심할여지 없이 영적인 경험을 하였으며 간증의 순수한 빛을 받았던 새로운 회원들을 격려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어떤 문제들은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모든 귀환 선교사들과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모든 개종자들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취소되버린 토론 약속, 문손잡이에 걸어 놓은 비닐 봉지 속에 방치되어 있는 몰몬경, 지켜지지 않은 침례 날짜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토론하는 동안이나 결심하고 침례 받는 동안이나 교회에서 처음 몇 주 그리고 몇 달간 참석하는 동안에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항상 사탄의 방해로 인해 힘이 듭니다. 최소한, 사탄은 여러분의 결심에서 약점과 결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만 하면 영원히 반대하고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나 반대는 무엇인가 선한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육받고자 하는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선교 임지의 첫번째 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랑과 결혼의 문제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교회 부름 또는 직업에 관련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요 결정을 내릴 때에 주의하고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결정하였다면, 선한 일에서 물러서게 하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에 따라 생활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지금도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압력이 심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결코 무릎 꿇고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인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계시의 영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저는 모세와 관련한 또다른 성구를 인용할까 합니다. 그 성구는 계시가 필요했을 때, 또한 올바른 진로가 설정되어 계속 이어져야 했던, 바로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일성도들은 교리와 성약 9편에 나와 있는 계시에 대한 공식,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면 주님께서 이를 확인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인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구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9편과 관련이 있는 8편에 대해서는 읽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저는 정신과 마음,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셔서 합당한 방법과 계시적인 방법, 즉 정신과 마음의 결합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인도하여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8:2~3)

왜 주님께서는 "계시의 영"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써 홍해를 건넜던 예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왜 그분께서는 첫번째 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사용하였던 모세서에 나오는 예를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야렛의 동생의 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예들 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

다. 여기에서도 그분은 마음속에 또다른 목적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시를 엄청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시에 대해 너무나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편이 어떻게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우리가 토론해 오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싸움"의 빛에 대한 것입니다.

계시는 거의 항상 질문, 그것도 일반적으로 긴박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긴박하고 충실하고 겸손하게 바라지 않는 한, 매우 중요한 내용의 정보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종 질문이 계시에 선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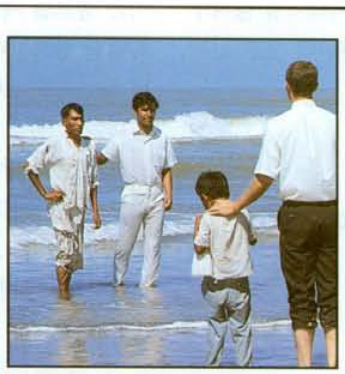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먼저, 거의 모든 계시는 항상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긴급한 질문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시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는 긴급하게 필요한 정보 또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모세의 과제는 모세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자신과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전차가 쫓아오고 있었고, 사방은 모래 언덕으로 둘러 쌓여 있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큰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하였던 것은 일상적인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문자 그대로 생사에 관한 문

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보가 필요하실 것이지만, 위대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이 긴박하고 충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 한, 그것은 쉽게 주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모로나이는 그것을 "참뜻을 가지고"(모로나이서 10:4)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의의 길에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의 확신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과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견디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시현에서의 모세처럼,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어떤 의심과 혼돈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적인 것에 비추어 판단해 본다면, 그 의심과 혼돈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초기에 얼마나 긴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계시를 진실되게 구하는 사람에게 홍해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권세와, 바로의 군대를 정렬시킨 다음 목전에서 넘실거리는 바닷물 앞까지 탈출하는 우리를 뒤쫓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빛은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고, 어두움은 다시 물러가게 될 것이며,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영으로써 홍해를 건넜던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첫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은 후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대가를 치른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첫번째 교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은 파괴적이며 때때로 우리를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마비시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에서 다시 없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계속하시 아니한 연고로" 그와 같은 말씀은 빛을 받았지만 다시 생각해보고 의심하게 되어 굴복한 사람들에게도 귀에 익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번역함은 필요없는 일이니라"라고 주님께서는 올리버가 듣기에 매우 힘든 언어로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라, 네가 시작하였을 그 때에는 필요하였느니라.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였고* 시간은 흘러갔으니 이제는 필요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5, 10, 11)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세가 사탄과 직면했던 순간에, "[그는]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저가 두려워 할 때에 지옥의 비참함을 보았더라."(모세서 1:20) 여러분이 두려워 할 때,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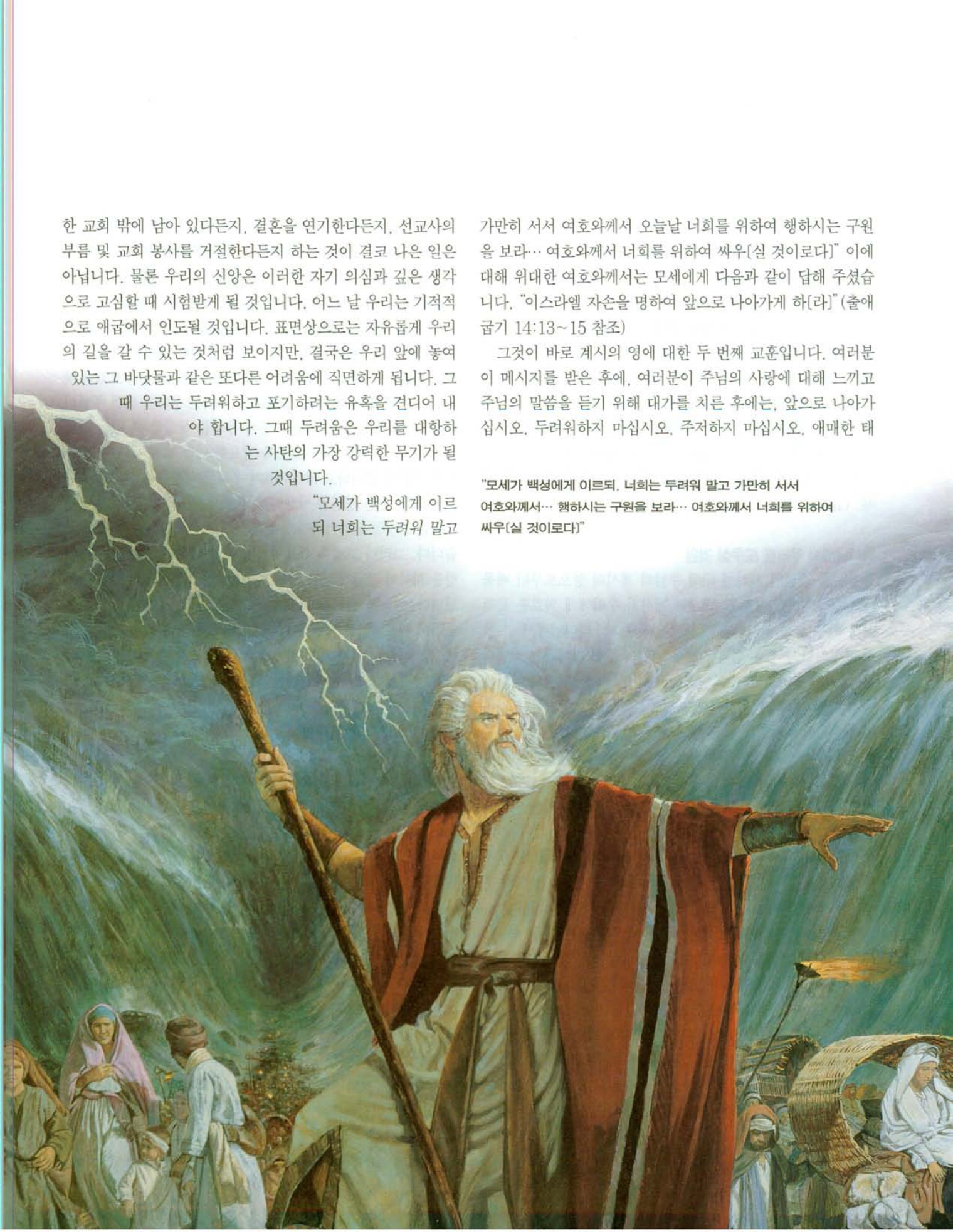
그것은 바로 홍해의 물가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또한 그것에는 여러분의 초기의 빛을 굳세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어떤 사람들(바울이 초기에 묘사하였던 것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불평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못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한 영은 옳은 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출애굽기 14:10~12) 저는 감히 다음과 말해 봅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험하였던 기적들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개구리 떼와 이들은 다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뱀은 무엇이며, 강물과 피는 또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우박과, 메뚜기 떼와, 불과, 장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 남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교회 밖에 남아 있다든지, 결혼을 연기한다든지, 선교사의 부름 및 교회 봉사를 거절한다든지 하는 것이 결코 나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자기 의심과 깊은 생각으로 고심할 때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인도될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자유롭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바닷물과 같은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포기하려는 유혹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우리를 대항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로다]" 이에 대해 위대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출애굽기 14:13~15 참조)

그것이 바로 계시의 영에 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은 후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대가를 치른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로다]"

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앰몬아이하로 갔던 앨마처럼(앨마서 8:18 참조), 특별한 길로 인도하는 노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 이곳에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간 사람은 없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항상 처음으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계시의 영으로써,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쫓으시고, 두 발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이에 대해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형제[자매]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교리와 성약 128:22)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임

홍해를 건넜던 기적에 대해 주님의 계시의 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빛나는 계시가 우리에게 의로운 목적이나 의무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시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만약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진실된 것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놓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 또는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다른 많은 합당한 일들 중 어느 것이라도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신성한 숲 속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20년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다른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이유, 즉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 (요셉스미스서 2:19)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고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권능으로써 널리 펴신 팔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나의 천사가 너희 앞장을 서거니와 나 또한 앞장서리라. 때가 이르면 너희는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103:17, 19~20참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의 약속된 땅입니다. 여러분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소유의 조그마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이며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쓰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숲이나 산이나 성전으로 데려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훌륭한 계획을 보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나 니파이나 야렛의 동생이 보았던 것처럼 완전하게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보게 됩니다. 저는 또한 사단과 영리하고 약삭빠르며 우리를 괴롭히는 그의 추종자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방해하려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난 후에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한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의 영을 회복의 근거가 되는 사실로 주장하는 말일성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둠과 절망을 뚫고 나오고자 했던 투쟁과 빛을 구하는 노력이 바로 이 경륜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진이 계속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계속 발전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35~36)

저는 사탄과 반대 세력의 실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과, 빛과 소망과 밝은 미래를 간증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과, 어두움의 반대 세력을 묶어 두시고 제한해 놓으셨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사망과 지옥과 그곳에 있는 타락한 자들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그 복음은 회복되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싸움이 찾아올 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라]" (출애굽기 14:13~14)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

1999년 3월 2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가진 영적인 모임에서의 말씀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평화스럽게 ♩ = 72-84 (1절은 무반주로 노래부르거나 멜로디만 반주할 수 있다.)

mp

1.내 구 주 살 아 - 계 시 다 큰 은 혜 주 는 - 이 말 씀 한
성 한 은 혜 - 주 시 고 눈 으 로 인 도 - 하 시 네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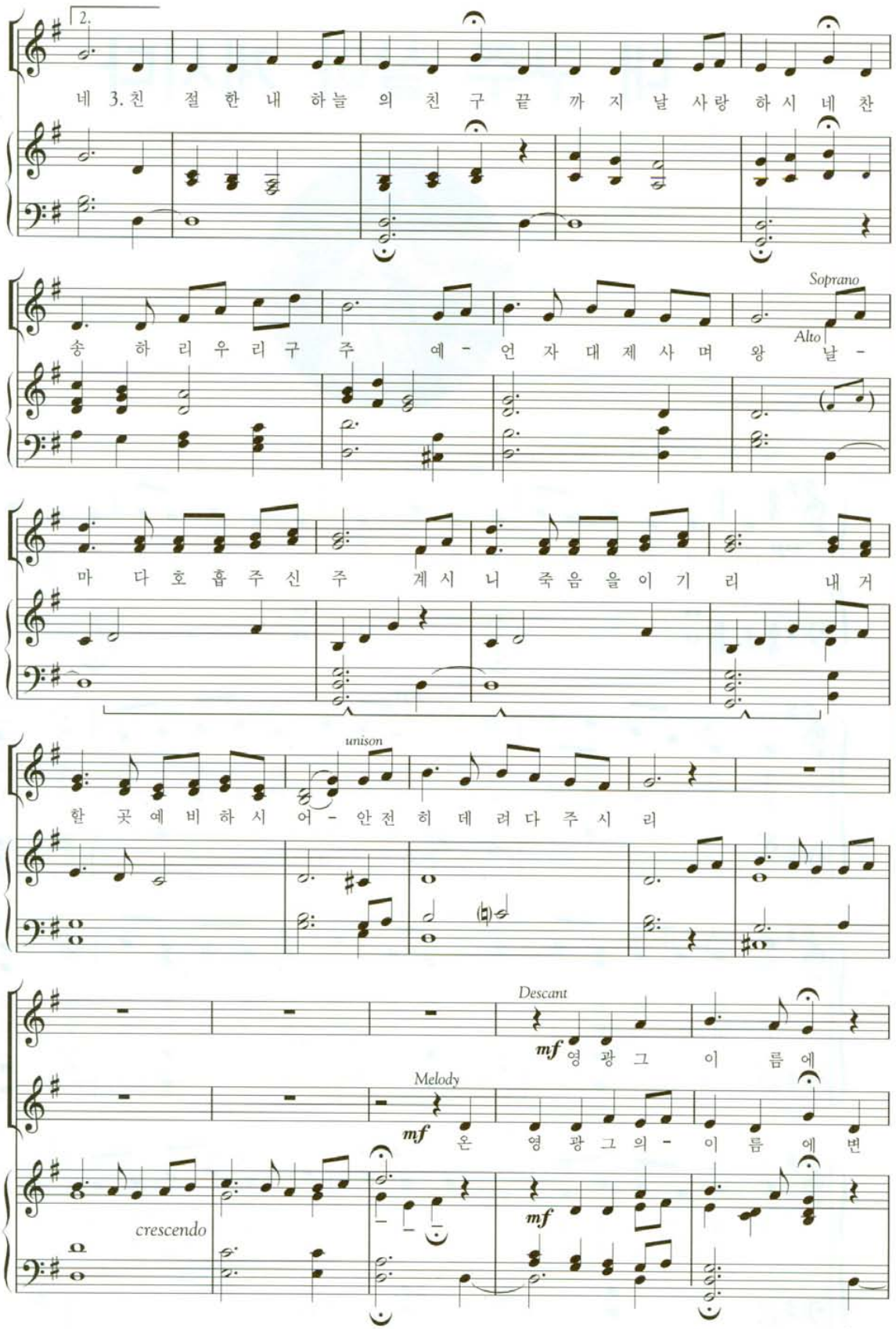
mp

때 죽 으 시 었 으 나 영 - 원 히 사 시 는 줄 세 사 랑
할 때 위 안 주 시 고 내 영 혼 의 불 평 아 시 네 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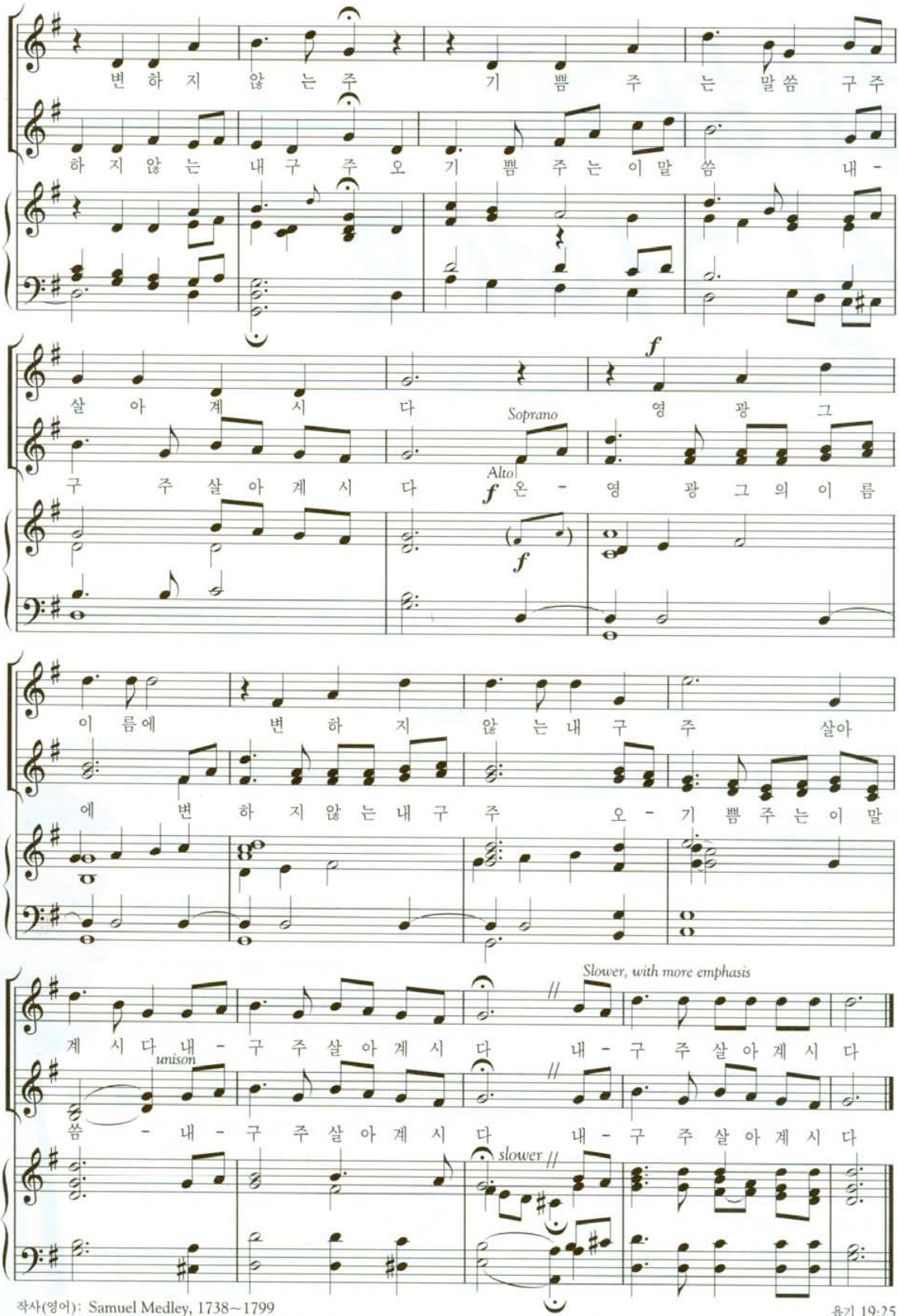
으 로 축 복 하 시 고 위 에 서 날 변 호 하 시 며 굶 주
두 렴 모 두 없 애 고 눈 - 물 씻 어 주 시 는 주 맘 의

1.

린 내 영 먹 이 시 고 - 구 - 하 면 축 복 주 시 네 2. 풍
고 통 위 로 하 시 며 - 모 든 축 복 나 눠 주 시



이 편곡은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작사(영어): Samuel Medley, 1738~1799
작곡: Lewis D. Edwards, 1858~1921
편곡: Ralph B. Woodward, born 1944. © 2000 IRI

욥기 19:25
시편 104:33~34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리차드 엠 롬니
사진 촬영: 저자

안나 스털리고브의 몰몬경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실감나는 그림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녀 자신이 그린 것입니다.

안나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사는 열다섯 살의 미술 학도입니다. 안나는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느낀 감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전 이야기를 읽고 밑줄을 긋거나, 앞뒤 참조를 하거나, 가장자리에 메모를 하는 것에 덧붙여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야기들이 실감나게 느껴져요."라고 안나는 말합니다.

간증을 나눔

물론 그 이야기들은 안나에게 이미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들입니다. 안나는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혼자서 또는 가정의 밤 시간에 몰몬경을 공부하고 있고, 포크롭스키 지부의 모임에서도 몰몬경을 읽고 있으며,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는 몰몬경 구절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특별히 친구들에게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나이다 아키모바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웃에 사는 부인인 제나이다는 안나의 어머니인 앨라의 친구로 안나 가족 모두(안나의 아버지인 콘스탄틴, 사샤로 알려진 안나의 오빠, 알렉산더를 포함한)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제나이다는 이 가족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이란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 더 배워 보세요." 안나가 권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모범의 힘

제나이다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서로에게 예의가 발랐어요. 그러면서 그들 대부분이 진심으로 서로를 염려하고 있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생활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가족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는 앨라가 조사한 수백 명의 이름들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털리고브 가족이 성전이라는 성스러운 곳에 갔다온 것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 모스코바 동 지방부의 부장인 콘스탄틴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나이다는 곧 선교사들과 만났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교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갈수록 많은 질문을 하며 많은 답을 얻고 있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안나의 끊임없는 설명 덕분으로 제나이다는

계속 더 배워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은

안나가 앞 못보는 친구에게 한

권유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한 녹음기 하나가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녹음기로 만든 테이프들은 안나의 친구 제나이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다.

그 경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나이다는 사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매우 나빠서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자를 읽을 줄도 몰랐으며, 읽을 줄 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어로 된 몰몬경 점자판이 없었습니다.

안나의 계획

그래서 안나와 앨라는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몰몬경의 여러 장을 소리내어 읽고 녹음을 하고는 다음날 아침 제나이다에게 녹음기를 틀어주곤 했습니다. 제나이다는 리하이, 니파이 및 여러 다른 예언자에 대해 배우면서 매우 감동했습니다. 테이프를 들려줄 때마다, 매주 그녀의 간증은 확고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안나의 몰몬경에 있는 생생한 그림처럼 제나이다의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들이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안나가 바쁠 때는 앨라가 녹음했고 앨라가 바쁠 때에는 안나가 녹음을 했습니다. 가끔은 사샤나 스털리고브 부장도 녹음기에 대고 읽었습니다. 매일, 한 구절, 두 구절, 한 장, 두 장이 거듭됨에 따라 테이프도 더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키모바 자매님이 제가 몰몬경에 대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원했어요. 장로님들이 처음 제게 몰몬경을 보여 주었을 때 저는 그것이 참됨을 알았어요. 저는 아무런 문제없이,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그 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쉬웠으며, 어쨌든 매일 저녁 몰몬경을 읽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해 녹음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해와 나눔

이제 제나이다의 침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들과 한번 더 만나기 위해 스털리고브네 아파트로 왔습니다. 행복하고 희망에 찬 분위기였습니다.

제나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이 가족은 제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어요. 나는 그들 덕분에 몰몬경 테이프를 갖게 되었고 원할 때는 언제나 그걸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의 모범과 사랑을 보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전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안나와 사샤 및 스털리고브 부장 내외 덕택에 나는 복음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나는? 지금도 여전히 안나는 친구들에게 몰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60명이 넘는 안나의 팬팔 친구 중 네 명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나는 그들에게 몰몬경을 보냈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친구는 시베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아요. 그 곳에는 선교사도 없고 가장 가까운 교회도 그애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는 선교사 토론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적어 보냈고 그 아이는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 아이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 배운 것도 얘기해 주었지만 몰몬경도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경전인 몰몬경은 성경을 더 완전하게 해주지요. 그 친구는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보내 달라고 말했어요." □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몰몬의 샘에서 침례 주는 앨마*

"이같은 방법과 순서로 몰몬의 땅에 이른 자 모두를 침례하니, 그 수가 이백 넷이요, 몰몬의 물에 침례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로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음을 받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더하여졌으며" (모사이야서 18:16~1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 15대 대관장으로 성임받고 성별되었던 1995년 3월 12일 이후부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자 개인적으로나 범교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 표지:* 1996년 5월, 중국 선전에서 색종이 가루를 가득 받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과 부인인 마조리 힝클리 자매. *위:* 1999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 헌납식에서 초석을 봉하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 부처. *아래:* 1995년 12월, CBS 방송의 *60분(60 Minutes)* 진행자인 마이크 월러스 기자에게 템플 스퀘어를 안내해 주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 10쪽의 "90세에도 변함없는 봉사의 모범" 참조.